Publication： INEWS24 Date：2007/10/22
Source: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89585&g_menu=020300
Subject： “Stiff TDS-CDMA policy isolates China” … Duncan Clark, Chairman of BDA

아이뉴스24

"중국, TDS-CDMA만 고집하면 고립"…던컨 클락 BDA 회장

조지연기자 digerati@inews24.com

중국이 TDS-CDMA 기술만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던컨 클락 BDA 회장

중국, 인도 등 아태지역 중심의 시장조사기관인 BDA의 던컨 클락 회장은 최근 홍콩에서 열린 넷이벤트에서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TDS-CDMA만 고집하고 있지만 차이나모바일 등 벤더들은 중국에만 한정된 TDS-CDMA 시장에 매이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중국은 현재 어리석은(stupid)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TDS-CDMA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지정한 국제 3세대(G) 표준이지만 현재 중국 내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TDS-CDMA는 본래 지멘스의 기술이었으나 지멘스 회사였던 중국 다탕이 정부 투자를 받아 주도적으로 개발해와 중국 정부가 TDS-CDMA를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3G 표준으로 채택된 한국의 독자 기술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의 경우 중국은 사실상 자국의 3G 표준인 TDS-CDMA 기술이 자리잡기 전에 모바일 와이맥스가 3G표준으로 채택되면 와이브로가 TDS-CDMA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해 투표 마지막까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중국은 실제로 TDS-CDMA를 고집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은 다르다. 중국에는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네트콤 등의 유선 통신사업자와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등의 모바일 통신사업자가 있으며 유선 사업자들은 급부상하는 모바일 시장에 진출하길 원하고 있다. 모바일 사업자들은 자국에서만 사용되는 TDS-CDMA 기술보다 전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WCDMA, EVDO 등의 서비스를 전개하기 원한다.

최대 모바일 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은 한정된 TDS-CDMA 시장에서 더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없다고 판단, WCDMA 진출을 두고 중국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다른 통신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TDS-CDMA가 시장에서 각광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핸드셋 자체가 크고 발열이 심하며 가격이 비싸고 속도가 느리다. 중국 모바일 가입자들은 노키아, 삼성, LG 등의 핸드셋을 원하지만 노키아는 TDS-CDMA용 핸드셋을 아예 내놓지 않으며 삼성은 단 1종의 모델만을 내놓고 있다. TDS-CDMA가 안고 있는 제약점이다.

클락 회장은 "중국 정부의 규제로 차이나모바일의 가입자 4억명 중 상위 20%의 고객만이 3G로 넘어가고 있다"며 "차이나모바일 총 수익의 25%가 SMS, 벨소리, 데이터 통신 등 3G 시장에서 나오는 등 소비자 요구가 3G를 지향해도 정부 규제로 중국 3G 시장은 2010년 쯤에야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재 4개 업체로 이뤄진 중국 통신사업자 시장은 곧 3개로 통합될 전망이다. 차이나유니콤의 CDMA 부분이 차이나텔레콤으로, GSM 부분은 차이나네트콤으로 옮겨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관련기사 보기
- "중국에 3G R&D 센터 구축"…이석환 SKT ...
- SKT, 최첨단 '기술보따리' 중국에 푼다
- 삼성전자, 中 TD-SCDMA 상용폰 공개
- 삼성전자, "와이브로 국제표준, 한국 IT...
- 중국, 100달러대 TD-SCDMA 단말기 만든다

태그 | 와이브로, HSDPA, WCDMA, 리비전A, ITU, 모바일 와이맥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TDS-CDMA,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네트콤, BDA,

2007년 10월 22일 오전 10:24